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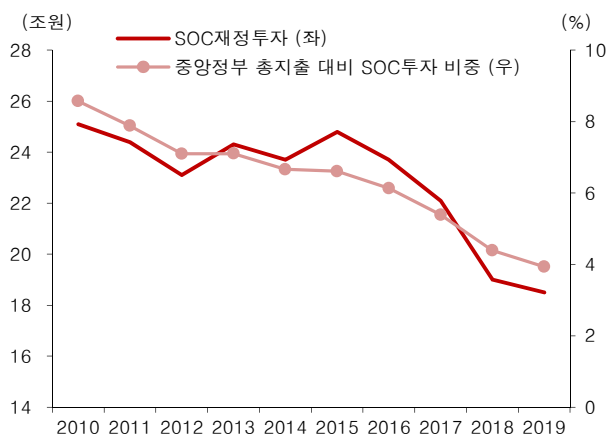
Issue Comment

- ✓ 정부,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
- ✓ 전 부문 고루 증액이 있었으나, SOC는 유일하게 삭감
- ✓ 중소형 건설사 먹거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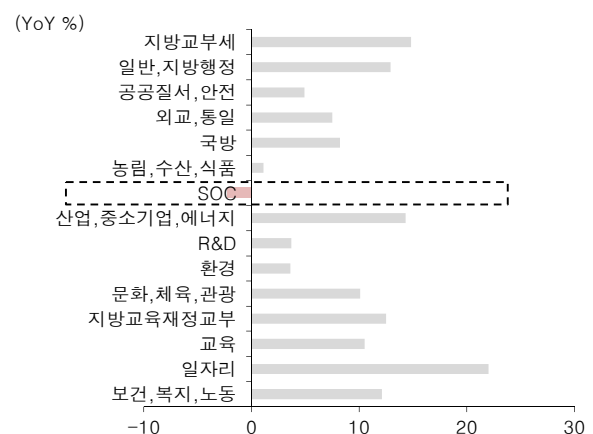
[건설] 내년 예산 중 유일하게 삭감된 SOC

- 2019년 예산 지출은 총 470.5조원으로, 2018년 432.7조원 대비 크게 증가했음. 이는 금융 위기 이후 최대의 증가폭으로, 증가율의 경우는 일자리, 일반/지방행정, 지방교육재정 등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.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가 총 지출 규모를 31조원 이상 늘리는 가운데, 유일하게 삭감된 분야는 SOC임. SOC 예산은 2018년 19.0조원에서 2019년 17.7조원 편성 계획이었으나, 그 보다는 다소 증액한 18.5조원으로 편성되며 올 해 대비 5천억원 감소. 정부 예산 증대가 큰 데에 비해, 총 지출 대비 SOC 투자 비중은 사상 최저인 4%를 기록함
- 정부에서 밝힌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전통 SOC와는 다른 것으로, 올 해 5.8조원에서 2019년 8.7조원으로 50% 증액함. 지역 밀착형 생활 SOC란 도서관, 체육시설, 교육시설, 문화시설 등과 같은 근린 시설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주의 큰 먹거리 증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. 금번 제출한 2018~2022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.0%씩 줄어들도록 설계됨. 2022년이면 SOC 예산은 17.5조원까지 낮아지는 상황. 향후 중 소형 건설주의 먹거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

정부 지출 대비 SOC 투자 비중 추이



2019년 예산 분야별 증감율



자료: 기획재정부, SK 증권

자료: 기획재정부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